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수험 기간 중에 개인 스테디를 했던 신설동 한국소방사관학원 수강생들의 도움을 받아 미비한 부분은 제가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급한 수험생들의 마음을 외면하기 어려워 먼저 올립니다. **복원이 잘못된 부분은 여러분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을 기대합니다.**

도움을 준 김경미, 김현기, 김진성, 김범호, 이은길, 나준현, 금가현, 최태복, 송지석, 김천일, 김대우 학생과 특히 며칠을 같이 복원해준 김수복, 김규성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7. 10. 31.

국 봉.

•2017. 10. 28. 하반기 소방직

<1. 현대문법>

1.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음이 들어있는 단어를 고르시오.

<보기>

혀의 최고점의 앞쪽이며,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며 발음하는 단모음.

- ① 과학 ② 귀족
- ③ 돼지 ④ 장수풍뎡이

지름길]

② ‘혀의 최고점의 앞쪽’은 고모음이면서 전설모음에 해당한다.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며 발음하는 단모음’은 원순모음이며 단모음인 경우이다. ‘원순모음’은 ‘ㄱ, ㅌ, ㄴ, ㄱ’이다. 이중 전설모음은 ‘ㄴ, ㄱ’이며 ‘귀족’의 ‘ㄱ’이 답이 된다.

답 ②

2.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것은?

- ① 돌배 ② 돌다리
- ③ 새해 ④ 우짚다

지름길]

① 돌배[돌(접사) + 배(어근) → 파생어]

돌-: 동식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품질이 떨어지는’ 또는 ‘야생으로 자라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② 돌다리[돌(어근) + 다리(어근) → 합성어]
- ③ 새해[새(어근) + 해(어근) → 합성어]
- ④ 우짚다[울(어근) + 짚다(어근) → 합성어]

답 ①

3. 다음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이 틀린 것은?

- ① 분다 → 오랫동안 목욕을 했더니 몸이 퉁퉁 불었다.
- ② 치루다 → 친구 장례식을 치렀으니 몸살이 날 만도 하지.
- ③ 신다 → 이사를 위한 짐을 모두 실어 날랐다.
- ④ 낫다 → 감기가 완벽히 나았다.

지름길]

② 치르다 → 친구 장례식을 치렀으니 몸살이 날 만도 하지.

치루다: ‘치르다’의 잘못된 표현으로 ‘물건 값을 치렀다.’는 ‘치렀다’로 써야 옳다. 기본형이 ‘치르다’이므로 ‘치르+았→치렀’이 되지 않는다.

① 분다: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 ‘분다’는 어간의 끝소리 ‘ㄷ’이 모음 앞에서 ‘ㄹ’로 바뀌는 ‘ㄷ’ 불규칙 용언으로, ‘불어, 불으니, 분는, 분지’와 같이 활용한다.

③ 신다: ‘신다’의 경우 ‘실으니, 실어서, 실었다, 실어’ 등으로 활용이 된다. 그러나 ‘신고’의 경우 ‘ㄷ’이 자음 앞에 위치해 있으므로 ‘ㄹ’로 바뀌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낫다: “병이 씻은 듯이 낫다”의 ‘낫다’는, ‘ㅅ’ 불규칙 용언의 어간에서 ‘ㅅ’이 줄어진 경우에는 ‘아’가 줄어들지 않는 게 원칙이므로, ‘나아’, ‘나았다’와 같이 활용한다.

답 ②

4. 다음 밑줄 친 단어가 동사가 아닌 것은?

- 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이 모이다.
- ② 철수는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
- ③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고쳤다.
- ④ 밥을 사먹었더니 돈이 없다.

지름길]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은 현재시제 선어말어미를 취하는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는 ‘없구나’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를 취하지 않는 형용사이다.

답 ④

5. 다음 밑줄 친 ㉠~㉣의 문장성분이 잘못 설명된 것은?

마법의 ㉠성을 지나 높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한 함께 있다면 - ‘마법의 성’ 노래 가사

- ① ㉠: ‘성을’은 문장성분 중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 ② ㉡: ‘멀리’가 ‘그대’를 꾸며주는 관형어로 쓰였다.
- ③ ㉢: ‘저’가 ‘하늘’을 꾸며주는 관형어로 쓰였다.
- ④ ㉣: ‘너무나’가 부사어로 쓰였다

지름길]

② 우리 국어에서 부사어의 자리의 이동이 매우 자유로운 평이다. 따라서 관형어인가 부사어인가를 구분할 때는 먼저 부사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부사어로의 기능을 하는가를 먼저 살펴본다. ‘멀리’의 경우 바로 뒤에 ‘그대’가 있지만, ‘보여’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답 ②

<2. 옛말과 옛글>

6. 다음 작품과 같은 장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배목결새 크나큰 장도로 똥닥바가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할 제면 여다져 불가 하노라.

- ① 초장이 aaba 형식을 취한다.
- ② 중장에 비슷한 사물을 나열했다.
- ③ 중장이 사설체로 길이가 늘어나고 있다.

④ 종장은 평시조의 일반 형태를 벗어났다.

지름길]

④ 종장은 일반적인 평시조의 형태와 같으나 종장이 평시조와 달리 길러진 형태이다.

<핵심정리>

지은이: 미상

갈래: 사설시조

성격: 해학적(골계적)

표현: 열거법, 반복법, 비유법, 음악성이 강함, 일상적인 언어를 나열하고, aaba 구조로 운율을 형성함.

주제: 마음 속에 쌓인 비애와 고통, 답답한 마음의 하소연

출전: 청구영언(靑丘永言)

답 ④

7.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근덧 밤이 드리 風풍浪浪이 定定히거늘, 扶부桑상 咫지尺척의 明明月월을 기다리니, 瑞서光광 千천丈丈당이 비는 듯 肅눈고야. 珠주簾렴을 고터 짓고, 玉옥階계를 다시 쓸며, 啓계明明星성 듯도록 窈초 안자 바라보니, ㉠白백蓮년花화 흔 가지를 杼라셔 보내신고. 일이 도흔 世세계계 浬대되 다 眺고져. 流뉴 霞하酒주 ㄱ득 부어 ㄴ드려 무론 말이, ㉡英영雄웅은 어디 가며, 四스仙선은 ㄷ ㄴ러니, 아리나 ㅁ나 보아 ㅂ ㅅ별 ㅈ자 ㅎ니, 仙仙山산 東동海회에 갈 길 ㅎ ㅊ도 ㅌ샤 松송根근을 ㅍ어 ㅊ어 ㅊ음을 ㅊㅊ트니, ㅊㅊ에 ㅎ ㅊㅊ이 ㅊㅊ드려 ㅊㅊ은 말이, “그ㅊㅊ를 ㅊㅊ 모ㄹ라, ㅊㅊ상계계에 ㅊㅊ진仙선이라. ㅊㅊ황庭庭經경 ㅊㅊ일字字를 ㅊㅊ ㅊㅊ트 ㅊㅊ고, ㅊㅊ인인간의 ㅊㅊ내려와셔 ㅊㅊ우리를 ㅊㅊ쫓오는다. ㅊㅊ저근덧 ㅊㅊ가디 ㅊㅊ마오. ㅊㅊ이 ㅊㅊ술 ㅊㅊ흔 ㅊㅊ잔 ㅊㅊ머저 ㅊㅊ보오.” ㅊㅊ북두斗星성 ㅊㅊ기우려 ㅊㅊ滄창海회水수 부어 ㅊㅊ내어, ㅊㅊ저 ㅊㅊ먹고 ㅊㅊ날 ㅊㅊ머저늘 ㅊㅊ서너 ㅊㅊ잔 ㅊㅊ거후로니, ㅊㅊ和화風풍이 ㅊㅊ접습접습ㅎ야 ㅊㅊ兩兩腋익을 ㅊㅊ추혀 드니, ㅊㅊ九구萬만리리 ㅊㅊ長장空공에 ㅊㅊ저기면 ㅊㅊ놀리로다. ㉢이 ㅊㅊ술 ㅊㅊ가져 ㅊㅊ다가 ㅊㅊ四스海회에 ㅊㅊ고로 ㅊㅊ눈화 ㅊㅊ億억萬만 ㅊㅊ蒼창生싱을 다 ㅊㅊ醉취케 ㅊㅊ밍근 후의, ㅊㅊ그제야 ㅊㅊ고터 ㅊㅊ맛나 ㅊㅊ쑈 ㅊㅊ흔 ㅊㅊ잔 ㅊㅊㅎㅊㅊ고야. ㅊㅊ말 ㅊㅊ디자 ㅊㅊ鶴학을 ㅊㅊ테고 ㅊㅊ九구空공의 ㅊㅊ올나가니, ㅊㅊ空공中중 ㅊㅊ玉옥簫소 소리 ㅊㅊ어제런가 ㅊㅊ그제런가. ㅊㅊ나도 ㅊㅊ좁을 ㅊㅊ찌어 ㅊㅊ바다를 ㅊㅊ구버보니, ㅊㅊ기꺾를 ㅊㅊ모르거니 ㅊㅊㅊ인들 ㅊㅊ엇디 ㅊㅊ알리. ㉣明明月월이 ㅊㅊ千천山山萬만落낙의 ㅊㅊ아니 ㅊㅊ비 ㅊㅊ쫓 ㅊㅊ딛 ㅊㅊ엎다.

- ① ㉠: 달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다.
- ② ㉡: 영웅과 사선을 만나 그 소식을 묻고 있다.
- ③ ㉢: 백성들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 ④ ㉣: 임금님의 사랑이 비추지 아니한 곳이 없다

지름길]

② ㉡부분은 [유하주(신선주) 가득 부어 달에게 묻는 말이, “영웅은 어디 갔으며 사선은 그들이 누구이더냐?”]로 풀이 된다. ‘달’에게 묻는 것이지 영웅과 사선을 만나 묻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핵심정리>

갈래: 양반 가사, 기행 가사, 정격 가사

성격: 서정적, 지사적, 서경적

운율: 3(4)·4조, 4음보 연속체

제재: 내금강과 관동 팔경

주제: 금강산, 관동 팔경에 대한 감탄과 연군지정 및 애민 사상

특징: 영탄법, 대구법, 생략법 등을 활용함.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뛰

어난 언어적 기교가 나타남.

연대: 조선 선조(16세기 말)

출전: “송강가사

답 ②

<3. 국어생활>

8.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의 단어의 선택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웬 남자가 성큼 나에게 다가왔다.
- ② 철수는 바지를 짜깁기 했다.
- ③ 철수는 사과를 금세 먹어치웠다.
- ④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지름길]

① 웬 남자가 성큼 나에게 다가왔다.

‘어찌 된’의 뜻을 나타내는 관형사는 ‘웬’이므로, ‘웬 남자 ‘와 같이 쓴다.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웬지 멋있어 보인다.”와 같이 쓰이는, “왜 그렇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 ‘웬지’가 있다.

② 짜깁기: 직물의 찢어진 곳을 그 감의 울을 살려 본디대로 흠집 없이 짜서 깎는 일. 기존의 글이나 영화 따위를 편집하여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드는 일.

③ 금세: ‘지금 바로’의 뜻으로 쓰이는 부사 ‘금세’는 ‘금시에’가 줄어든 말이다.

금세: 물건의 값. 또는 물건값의 비싸고 싼 정도.

④ 오랜만: ‘오래간만(어떤 일이 있는 때로부터 긴 시간이 지난 뒤)’의 준말.

답 ①

9. 다음 중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이 아닌 것은?

- ① 그는 고향에서 온 친구를 어제 만났다.
- ② 할아버지께서는 귤과 사과 2개를 주었다.
- ③ 목소리가 예쁜 영희의 동생을 만났다.
- ④ 오빠는 동생과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

지름길]

② 할아버지께서는 귤과 사과 2개를 주었다. → 귤과 사과가 각각 2개인지 합쳐서 2개인지 알 수 없다.

③ 목소리가 예쁜 영희의 동생을 만났다. → ‘목소리가 예쁜’이 ‘영희’를 수식하는지 ‘영희의 동생’을 수식하는지 알 수 없다.

④ 오빠는 동생과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 → ‘오빠가 동생과 함께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와 ‘오빠가 동생과 선생님을 두 사람을 만나러 갔다.’인지 알 수 없다.

답 ①

10. 다음 로마자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집현전 Jiphyeonjeon
- ② 학여울 hageyoul
- ③ 합덕 habdeok
- ④ 축석루 choksseoknu

지름길]

- ② 학여울 Hangnyeoul
- ③ 합덕 Hapdeok
- ④ 축석루 Chokseongnu

답 ①

<4. 한문>

- ② 사마천의 ~~~에 의문을 가졌다
- ③ 사마천의 그 당시 명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 ④ 사마천의 그 당시 명성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지름길]

답 ③

14. 다음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 어머니는 육아를 통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에 기쁨을 느낍니다. 과학자는 작품을 만들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만족감을 얻기도 합니다.

- ① 과정을 통한 성취감
- ② 물질적 보상 만족감
- ③ 노동을 함으로 느끼는 성취감
- ④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움을 느낀다.

지름길]

답 ④

<7. 문학>

15.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이 옳바르지 않은 것은?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으로
누룩 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 우리에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떡 따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밥 때 늦어도 투덜덜 줄 통 모르고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 훤히 가리마 냈지요.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머슴 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 오듯 읽었지요.
어린 아이 세상에 눈 떴지요.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거겨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지요.

대길이 아저씨더러는
주인도 동네 어른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살구꽃 핀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홀적삼 큰아기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하고
㉡지게 작대기 뉘어 놓고 먼 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나도 따라 바라보았지요.
우르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 소리 들었지요.

㉢찬 겨울 눈 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겨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그가 말했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다.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

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 새우는 불빛이었지요.

- ① ㉠: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불평불만 없는 모습이다.
- ② ㉡: 이상적이고 넓은 세계를 동경하고 있다.
- ③ ㉢: 머슴의 비참함을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 ④ ㉣: 시적 자아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려는 의도이다.

지름길]

④ ㉣: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려고 함. 모든 인간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대길이의 사상.

<핵심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율격: 내재율

성격: 현실 참여적, 회상적, 비판적, 민중적, 존재론적, 토속적

어조: 소박하고 친근한 이야기투

표현: 소박하고 단순한 일상적 표현을 구사함

구성: 산문적인 구성

1연: 힘세고 근면하며 나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 대길이

2연: 인격적이고 생각이 깊은 대길이

3연: 가난하나 남과 함께 사는 대길이

4연: 나의 영원한 스승 대길이

제재: 머슴 '대길이' 의 삶. 진솔한 민중의 삶

주제: 소외되고 억눌린 민중의 건강한 삶. 함께 사는 삶의 아름다움

출전: 만인보(萬人譜)(1986)

답 ④

16. 다음 시에 나타난 시적 자아의 정서와 태도에 가장 가까운 것은?

남으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같이

팽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결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허공 중(虛空中)에 헤어진 이름이여!/불러도 주인(主人) 없는 이름이여!/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김소월, '초혼'

②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가슴에 금이 갔다.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③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신경림, '농무'

④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

지름길]

④ ‘담으로 창을 내겠소’는 삶의 허무 의식에서 벗어나 자연과 합일되어 무위의 상태에 다다른 시인의 인생관 내지 삶에 대한 태도를 함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귀천’도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의 정신을 세속을 초월한 달관의 세계와 조화시키고 있다.

- ① 입을 잃은 처절한 슬픔과 한(恨)의 정서 표출.
- ② 자연에 대한 향수와 문명 비판적인 정서 표출.
- ③ 절망과 분노의 심정이 느껴지는 목소리, 산업화에 밀려 소외된 계층의 애환을 울분과 분노의 목소리로 표출.

<핵심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전원적, 자연 친화적, 달관적
 제재: 전원 생활
 주제: 전원 생활을 통한 달관적인 삶의 추구
 특징: 소박하고 친근한 회화조의 어조. ‘-소, -요, -오’의 각운을 통한 운율감 형성. 간결한 시어의 사용.
 출전: “문학” (1934)

답 ④

17. 다음 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①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를 대립적으로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했다.
- ③ 청유형과 명령형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청자를 명시하여 대화하듯 표현하고 있다.

지름길]

② 음성 상징어를 대립적으로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했다. →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며, '물'과 '불'의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함. 이 시에서의 '물'은 1연 '가문을 해소해 주는 생명의 원천'의 이미지에서 2연의 '강물과 바다'로 구체화되

면서, '흐름을 통해 비인간적이고 문명화된 불순물을 다 걸러 내어 마침내는 순수한 존재'로 나타난다. 이 시에서 이러한 '물'과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은 1연의 '가문'과 3연의 '불'이다. '가문'은 '물', 즉 '생명'이 고갈된 상태를 말하며, '불'은 죽음과 파괴, 소멸의 이미지로 제시되어 생명의 파괴를 함축적으로 의미한다.

①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 가정법을 통해 시적 화자의 소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 화자가 이처럼 가정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소망을 거듭 밝히는 것은 소망이 그만큼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화자의 바람이 그토록 절실한 것은 현실의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부정과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③ 청유형과 명령형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 ‘흐르는 물로 만나자.’,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4연에서 이 ‘불’이 지나가고 난 후 모든 사람들이 ‘만 리(萬里) 밖’의 ‘넓고 깨끗한 하늘’에서 마침내 ‘흐르는 물’로 만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화자가 지향하는 ‘넓고 깨끗한 하늘’이란 바로 완전한 합일과 충만한 생명을 맞볼 수 있는 곳으로, 새로운 창조적 만남의 공간을 상징한다.

④ 청자를 명시하여 대화하듯 표현하고 있다. →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

<핵심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의지적
 제재: 물과 불
 주제: 조화로운 합일과 생명력이 충만한 세계에 대한 소망
 특징: 가정법 형태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함. ‘물’과 ‘불’의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전달함.
 출전: 우리가 물이 되어(1987)

답 ②

18.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수분은 양평서 오정이 거의 되어서 떠나서, 헤져 갈 즈음해서 백 리를 거의 와서 어떤 높은 고개를 올라섰다. 갈날 같은 바람이 뺨을 친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앞을 내려다보다가, 소나무 밑에 희끄무레한 사람의 모양을 보았다. 그것을 곧 달려가 보았다. 가 본즉 그것은 옥분과 그의 어머니이다. 나무 밑 눈 위에 나뭇가지를 깔고, 어린것 엮는 현 누더기를 쓰고 한끝으로 어린것을 꼭 안아 가지고 웅크리고 떨고 있다. 화수분은 왁 달려 들어 안았다. 어멈은 눈을 떴으나 말은 못 한다. 화수분도 말을 못 한다. 어린것을 가운데 두고 그냥 껴안고 밤을 지낸 모양이다.

이튿날 아침에 나무 장수가 지나다가, 그 고개에 젊은 남녀의 껴안은 시체와, 그 가운데 아직 막 자다 깨인 어린애가 등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앉아서, 시체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어린것만 소에 싣고 갔다.

- ① 독백체를 사용했다.
- ② 생략을 통해 여운을 강조했다.
- ③ 작가가 직접 설명해서 인물의 성격을 알려준다.
- ④ 비극적 사건을 냉철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담담한 문체를 사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지름길]

④ 서술자는 시대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화수분 일가의 비참한 삶

과 죽음을 담담하게 제시하여 하층민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지면서 사랑의 의미를 일깨우고 있다.

① "화수분"은 행랑채에 세든 가난한 농촌 부부와 함께 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을 관찰한 '나'의 체험 소설이다. 가난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화수분' 부부를 그려 내는 '나'의 서술 태도는 매우 냉철하고 객관적이어서 더욱 그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③ '나'의 눈에 비친 화수분 가족의 비참한 생활상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관찰하고 묘사한 작품이다.

<핵심정리>

갈래: 단편 소설, 액자 소설

성격: 사실적, 비극적

배경: 시간 - 일제 강점기의 겨울. 공간 - 서울과 양평 일대.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부분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보임)

주제: 가난한 부부의 비참한 삶. 자식에 대한 고귀한 사랑.

답 ④

19.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장은 먼지 낀 유리를 통해 대합실 안을 대충 휘둘러본다. 대합실이라고 해야 고작 국민학교 교실 하나 정도의 크기이다. 일제 때 처음 지어졌다는 그 작은 역사 건물은 두 칸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사무실과 대합실로 쓰이고 있는 터였다. 대개의 간이역이 그렇듯이 대합실 내부엔 눈에 떨 만한 시설물이라곤 거의 없다. 유난히 높은 천장과 하얗게 회칠한 사방 벽 문에 열 평도 채 못 되는 공간이 텅없이 넓어 보여서 더욱 쓸쓸스런 느낌을 준다. 천장까지 올라가 매미마냥 납작하니 붙어 있는 형광등의 불빛이 실내 풍경을 어슴푸레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지금 대합실에 남아 있는 사람은 모두 다섯이다. 한가운데에 툭툭 난로가 놓여져 있고 그 주위로 세 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난로는 양철통 두 개를 맞붙여서 세워 놓은 듯한 꼬락서니로, 그나마 녹이 잔뜩 슬어 있어서 그간 겨울을 몇 차례나 맞고 보냈는지 어림잡기조차 힘들다. 난로의 허리에 툭툭 모양으로 촘촘히 뚫린 구멍 새로는 툭툭 타들어가면서 내는 빨간 불빛이 내 비치고 있다. 하지만 형편없이 낡아빠진 그 난로 하나로 겨울 바람의 찬 공기를 덥히기에는 어렵도 없을 듯하다. 임철우, '사평역'

- ① 서술자가 주인공으로써 객관적으로 등장인물을 설명한다.
- ②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내면을 진술했다.
- ③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다.
- ④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관찰자적 입장을 보인다.

지름길]

②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내면을 진술했다.' 는 3인칭 전지적 시점에 관한 진술이다.

- ①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객관적으로 등장인물을 설명한다. → 1인칭 관찰자 시점
- ③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다. → 1인칭 주인공 시점
- ④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관찰자적 입장을 보인다. → 3인칭 관찰자 시점

<핵심정리>

갈래: 단편 소설

성격: 서정적, 성찰적, 회상적

배경: 시간 - 1970 ~ 1980년대. 공간 - 시골 간이역 대합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간이역 대합실에서 나누는 삶에 대한 교감

특징: 시에 서사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전개함. 중심인물 없이 여러 인물의 내면이 서술됨.

출전: 민족과 문학(1983)

답 ②

20. 다음 밑줄 친 ㉠ 과 같은 의미인 것은?

나는 내가 소설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소설가인 것에 자부심도 느끼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면 마치 허세를 부린 것처럼 뒷맛이 허전해지곤 한다. 내가 당초에 되고 싶었던 건 소설가가 아니었다. 다만 대학에 가서 학문을 하고 싶은 꿈에 부풀어 있었다. 무엇이 되는 건 그 다음 문제였다. 당시만 해도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었을 뿐 졸업하고 뭐가 되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가 아니었다. 어느 대학 어느 과가 더 출세에 유리하고,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식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었다. 사회적 부조리를 비판하고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지성을 길러내는 데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었다. 그러해서 우리는 인문대를 대학의 대학이라고 자부하며 기고만장했었다. 오죽하면 대학을 상아탑이라 불렀겠는가. 그만큼 잡스러운 욕망이나 더러운 실리로부터 보호받는다느니 면이 강했다. 막 대학 문턱에 들어선 초년생에게 대학은 진리와 자유의 공간이었고, 만 권의 책이었고, 그 안에 숨어있는 문장이었고, 지적 갈등을 축여줄 명강의였고, 사랑과 진리 등 온갖 좋은 것이었다.

나는 그런 것들로 나만의 아름다움을 짊 줄 알았다. 그러나 막 베틀에 앉아 내가 꿈꾸던 비단을 한 뼀도 짜기 전에 무참히 중턱에 깔리고 말았다. 전쟁은 그렇게 무자비했다. 그래도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다른 인생을 직조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당초에 ㉠꿈꾸던 비단은 아니었다. 가본 길보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내가 놓친 꿈에 비해 현실적으로 획득한 성공이 더 초라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 박원서,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 ① 소설가
- ② 출세
- ③ 좋은 직업
- ④ 놓친 꿈

지름길]

㉠ '꿈꾸던 비단' 은 작가가 가지 못한 길로 작가가 소망했던 길이었다. '대학에 가서 학문을 하고 싶은 꿈에 부풀어 있었다.', '진리와 자유의 공간이었고, 만 권의 책이었고, 그 안에 숨어있는 문장이었고, 지적 갈등을 축여줄 명강의였고, 사랑과 진리 등 온갖 좋은 것이었다.' 에 작가가 말하는 '꿈꾸던 비단' 이 나타나 있다. 그것은 결국 가보지 못한 곳 '놓친 꿈' 이다.

답 ④

이 문제는 수험생들의 기억을 기초로 하여 미비한 부분은 제가 창의적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실제 문제와 많이 다른 부분도 있으며 일부 복원에 실패한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만든 복원 문제이므로 출처를 밝히지 않은 무단 전제나 복제는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